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 논의 진전

왕양비 연구원

■ 지난 2월 27일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¹⁾는 중국이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체제 혁신과 이에 따른 정치적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 동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2011년 현재 10%대에서 2021년 5.9%, 2026년 5.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및 고정자산 투자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중국의 경제구조를 더 빠르게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함.
- 세계은행은 중국의 경제개혁 진척도가 느리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 예다 사회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함.
- 경제개혁 조치 중 하나인 이자율 인상의 경우 지방정부의 대규모 채무에 대한 상환 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해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했던 2011년에도 채택하지 않음.
- 또한, 대기업 및 독점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세계개혁이나 이익배당금 상향 조정도 기득권²⁾층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Financial Times는 현재 중국 정부가 개혁에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동 개혁을 실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함.

- 세계은행은 동 보고서가 중국 정부 산하 국무원 발전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작성되었고 중국 부총리 리저치양³⁾도 동 보고서의 작성에 대해 지지했다고 밝힘.

1) 「2030年的中国：建设现代，和谐，有创造力的高收入社会」(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2) 국유기업이나 지배주주가 정부인 대형 주식회사는 정부의 지원으로 해당 산업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업의 관리자들은 주로 정부 관료이거나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중국의 개혁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3) 리저치양은 중국의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인물임.

- 그러나 Financial Times는 서구식 경제체제에 대한 중국 권력자들의 수용도가 낮고, 시진핑과 리저치양 주도 차기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신념이 서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만큼 강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Financial Times, WSJ, 2/27 등)